

2015 년 12 월 13 일(주일) 야고보서(8) “온전하게 되는 믿음”(약 2:18-26)

<도입> (오늘 본문은 다음 시간까지 이어서 다룸)

요즘은 어디에 가도 믿음에 대한 얘기도 많고 의문도 많습니다. 자살 테러라든지, 사람을 죽이고도 양심에 가책이 안 느껴지는 것은 어떤 믿음일까? 모든 종교에서 자기들이 바르고 옳다고 생각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급기야 귀신에게도 믿음이 있다고 나옵니다.

[1] 귀신에게도 있는 믿음?!

18 절의 믿음을 보이라는 말씀을 강조하기 위하여 재미있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19 절.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고 믿는 믿음은 실제로 삶에 실제적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믿음으로 행한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자신을 내려놓고 상대를 위해 배려하고 베푸는 행동을 포함해야 합니다. 한마디로 사랑의 연습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요? 오늘 그것을 아브라함의 예를 따라 찾아보고자 합니다.

[2] 아브라함이 보인 믿음

구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인류 구원의 일을 시작하실 때, 아브라함이라는 한 개인을 먼저 부르시고 그의 인생을 이끌어 가십니다(주전 2000 년 전). 하나님은 이 사람을 통해 당신의 구원을 확장시켜 가십니다. 창세기를 보면 아브라함의 초기 신앙 생활 40 년의 행적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 이유는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고 산지 40 년쯤 되었을 때 하나님의 벗이라고 불려질 정도로 크게 칭찬 받는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뒤늦게 100 세 때 얻은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말씀에 순종한 사건이었습니다.

이것을 행했을 때 하나님께선 아브라함을 크게 칭찬하십니다.

창 22:12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았노라.”

16 절 이하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순종)하였음이니라”

우리에게 똑 같은 형태로 요구하지는 않지만 본질적인 측면에서 당신의 요구는 시대를 불문하고 똑 같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행할 수 있었던 모리아 산에서의 순종을 행함있는 믿음의 예시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3]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근거

하나님을 신뢰했던 아브라함의 믿음은 영적 세계를 보고 확신한 것에 기초합니다. 그가 본 영적 세계는 무엇입니까? 구원을 통해 주시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러나 그 영적 세계는 **자신에게 실제로 임하고 누려지지 않는** 것입니다.

창 21:33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와 이름을 불렀으며”

아브라함이 발견한 영생에 대한 믿음을 표현한 구절입니다. 말하자면 ‘당신께서 날 구원하신 은혜 속에는 내가 누릴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님을 알았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죽어도 다시 산다는 부활 생명을 알았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은 죽더라도 죽는게 아님을 믿은 것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다음과 같이 묘사합니다.

히 11:17-19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 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였으니 그가 하나님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야고보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은 한 분 이심을 믿는다고 말만 하는 차원이 아니라, 그분을 신뢰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베풀이라고 불려지는 것이 진짜 믿음이라고 말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 진짜 믿음에는 언제나 '다시 살아 얻어진 이삭'이라는 선물이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아브라함이 '행함(순종)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말합니다(21, 24 절). (의롭다함 = 하나님과의 관계가 세워지고 깊어짐). 바울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서 말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말을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23 절). 그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음이 이루어졌고' 하나님의 베풀로 인정받은 것은 행함으로 말미암은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맺음>

야고보가 교우들에게 아브라함을 참 믿음의 모델로 제시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비록 가난한 자/부자에 대한 자세가 구약의 도덕법에 의거했을 때도 노출되는 낮은 수준이었고, 행위가 없는 죽은 믿음의 상태였지만, 하나님께서 불러 주셨고,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졌으므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초가 되는 영적 생명 세계를 함께 공유했다는 뜻입니다. 그 세계를 보았다면 이제 자신을 내어 놓을 수 있는 사랑과 섬김을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가난한 자들을 사랑하고 섬겨도 소용없다는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소용없다 여겼을지라도 하나님의 영적 세계를 신뢰함으로 섬긴다면 분명히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 훨씬 이상의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약속으로 얻는 길입니다.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감으로써 영적 세계가 부요해지는 모든 순종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2015 년 12 월 13 일(주일) 야고보서(8) "온전하게 되는 믿음"(약 2:18-26)

야고보는 행함있는 믿음의 본으로서 아브라함과 라합의 순종을 예시로 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드리라는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그 신뢰는 하나님께서 영생의 주인이시며, 우리에게도 영생을 주셨다는 사실을 경험한 것에 기초했습니다. 그는 이삭을 바쳐도 하나님은 다시 살리셔서 무수한 후손들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신뢰했습니다. 부활신앙을 가졌던 것입니다. 순종의 결과 그는 부활한 이삭을 다시 선물로 받았습니다(히 11:19).

1. 야고보 교우들이 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가난한 자들에 대하여 어떤 자세를 취함이 마땅한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이웃 사랑은 하나님의 변함없는 뜻입니다. 그들을 섬기는 것은 부질없는 짓이라고 생각했을 지라도 이웃 사랑의 계명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영생의 가치들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실제 영적 선물들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2.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생의 부활의 신앙을 확신한다면 그분을 신뢰할 수 있고, 그 신뢰 위에 그분 뜻을 따르는 행함 있는 믿음의 수준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나는 소용없는 일이라 여겼지만, 주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순종한 경험이 있습니까? 그 순종의 결과 당신이 누렸던 하나님 나라의 실재(reality)가 있다면 나누어 봅시다.